

-아/어 봤자

~해 봤자 소용없다

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소용없다고 일축하는 표현입니다. -아/어 보다에서 나온 것으로, 해 보고 확인한다는 뜻이지만 확인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ㅏ 또는 ㅑ	-아 봤자	가다 → 가 봤자
그 밖의 모음	-어 봤자	먹다 → 먹어 봤자
하다 동사	해 봤자	공부해 봤자
뒤 절	헛된 결과	이미 늦었어요
양을 일축	-아/어 봤자 + 양	비싸 봤자 만 원
봤은 고정	과거 시제 아님	가 봤자 — 갔 봤자(×)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 선택은 -아요/어요규칙을 따릅니다: 가 봤자, 먹어 봤자, 해 봤자. 봤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, 여기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.

뒤 절에는 헛된: 지금 가 봤자 이미 늦었어요.을 나타내는 결과가 옵니다. 이 부정적인 결과는 필수이며, 쓸모 있는 결과가 오면 이 구문과 모순됩니다.

두 번째 용법은 어떤 양이 적다고 일축하는 것입니다: 비싸 봤자 만 원이에요 — 비싸 봤자 만 원이라는 말은 곧 비싸지 않다는 뜻입니다.

문체는 구어적이고 어조는 깎아내리는 느낌이므로, 격식 있는 상황이나윗사람과의 대화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

■ 예문

- 1 지금 가 봤자 이미 늦었어요.
- 2 말해 봤자 소용없어요.
- 3 아무리 비싸 봤자 만 원이에요.
- 4 지금 공부해 봤자 시험을 잘 볼 수 없어요.
- 5 직접 만들어 봤자 시간만 걸려요.
- 6 서둘러 봤자 결과는 같아요.

■ 비교

-아/어도

-아/어도는 결과에 대해 중립적이고, -아/어 봤자는 소용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. 일축하는 느낌은 뒤의 것에만 있습니다.

가도 늦어요. (가더라도 늦는다) / 가 봤자 늦어요. (가 봐야 소용없이 늦는다)

-더라도

-더라도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며 신중한 말투에 어울리고, -아/어 봤자는 구어적이고 비관적입니다.

아무리 힘들더라도 하세요. (아무리 힘들어도 하십시오) / 해 봤자 소용없어요. (해 봐야 소용없다)

-아/어 보다

원래 구문은 한번 해 보라고 권하지만, 봤자를 더하면 시도 자체를 미리 막습니다. 모양은 같아도 정신은 정반대입니다.

한번 해 보세요. (한번 해 보십시오) / 해 봤자예요. (해 봐야 소용없다)

■ 주의

✗ 지금 공부하어 봤자 소용없어요.

○ 지금 공부해 봤자 소용없어요.

하다는 보다, 놓다 앞에서처럼 봤자 앞에서 해가 됩니다.

✗ 열심히 해 봤자 시험에 합격했어요.

○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.

-아/어 봤자에는 헛된 결과가 와야 합니다. 좋은 결과에는 -아서를 쓰십시오.

✗ 부장님, 지금 가 봤자 늦으실 거예요.

○ 부장님, 지금 가셔도 늦으실 것 같습니다.

이 어미는 구어적이고 깎아내리는 느낌입니다. 윗사람에게는 중립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.